

건축문화 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7.10.095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발행인 :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사랑

광주건축사회, 어린이들에게 건축과 도시에 대한 꿈을 심어준다.

지난 9월 23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열어

광주건축사회,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업무 개시 안내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자격 갱신등록자 대비, 갱신 가능 회원 35% 밖에

광주건축사회, 도시재생뉴딜정책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오는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전남건축사회, 제2회 전국 순회 건축·도시 정책 포럼 주관

지난 9월 21일 동신대학교 동강홀에서... 건축도시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제시

Editorial

저성장 및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도시계획

목포대 건축학과, 2017 건축전 개최

지난 9월 13일 학내 플라자 60 전시실에서... 창원대 교류전까지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열기 고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생협약 및 30여 기관단체와 뉴딜사업 참여 업무협약 체결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 삼도봉 등반대회 개최

지난 9월 29일 민주자산 삼도봉에서... 3개도 회원 및 가족 100여 명 참석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부문 대상에 전북과학교육원 선정

전주 길 건축 이길환 건축사 설계, 지역 건축사로 첫 대상 수상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22%만 내진 설계, 대상 동수 10개 중 2개꼴로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 낮은 지역은 부산

순천시 조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제14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0월 25일 개막

사랑에서 _ 서른다섯 번째

건축사 업무대가에 대한 울분

가암리 주택, 여수 우두리 호텔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Editorial

저성장 및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도시계획

체코 프라하를 가면 오랜 역사라는 시간의 자산으로 중세도시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고, 최근 베를린은 도전과 변화를 통해 창의적 도시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간 우리 도시는 색깔에 갈망하였는데 최근에 도시 정체성을 그려내고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유형화하면 첫째, 과거의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간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도시건축의 결합을 통해 핫 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버려진 땅, 구제 불능의 도시공간을 시간의 가치를 통해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고 있다. 예를 들어 추억이 남은 오래된 극장이나 골목길을 새롭게 조명하다던지, 군산 시처럼 근대건축물 보전하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에 이론으로 머물렀던 '도시를 만드는 주역이 시민'이라는 패러다임이 이제는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도시상징물 건립이라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녹지·공원을 지켜 여유와 휴식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되면서 과정이 중시되고 있다. 한 예로 광주시의 경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공원 일몰제 대비 광주시민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연구결과물을 도출해 냈고, 토론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은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과정을 보이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목표 설정에 합의한 후 차근차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현하는 사례가 적었으나, 최근 광주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지금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에게는 인구감소, 저성장 등 약제가 있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위 3가지가 융합된 '소프트파워 도시'를 일환으로 하고 싶다.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유의 가치를 매력 자본으로 삼고 도시공간을 조성하면서 라이프스타일, 예술 분야에서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이다. 사람이라는 매력 자본을 담을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시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논의하며 실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욱 논설위원

가암리 주택

박학수 건축사 / (주) GA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3층 Tel. 062-361-0123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가암리 83-27번지 / 대지면적 : 949.00㎡ / 건축면적 : 188.10㎡ / 연면적 : 159.05㎡ / 건폐율 : 19.82%
 용적률 : 16.75%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금속패널, 적삼목패널, 자연석쌓기



광주건축사회, 어린이들에게 건축과 도시에 대한 꿈을 심어준다.

지난 9월 23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건축도시 그림 그리기 사생대회 열어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가 주관한 '제14회 광주 건축도시 그림 그리기 사생대회'가 지난 9월 23일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

됐다.

'좋아하는 건축물, 살고 싶은 집 그리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 광주지역 소재 유치원생들을 비롯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 건축사, 대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명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그림 그리기 대회는 우리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쳐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우리 광주시의 건축물과 도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작년 건축도시 그림 그리기 대회가 기존에 작품만을 접수받은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사생대회로 처음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올해 대회 역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고 어린이들에게 건축과 도시에 대한 꿈을 키워주기 위한 현장 사생대회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사생대회가 작년에 참가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작년 대비 참가신청자 수가 65명에서 12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향후 2~3년 이내에 대규모 대회로 자리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수상자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되는 제14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전시된다.

광주건축사회, KMI 한국의학연구소 광주센터와 MOU 체결

지난 9월 14일 KMI 광주센터 회의실에서... 회원 및 가족 건강검진 할인 혜택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9월 14일 광주 서구 치평동 KMI 한국의학연구소 광주센터 회의실에서 KMI 한국의학연구소 광주센터와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김선영, 윤양현 부회장, 정인채 부이사장 등 회장단과 KMI 정형근 광주센터장과 KMI 서갑열 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체결식은 광주건축사회 회원 및 회원 가족, 사무소 임직원에게 종합 건강검진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자세한 검진 내용 및 할인 혜택, KMI 한국의학연구소에 대한 소개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9148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상에 없던 CAD,
혁신 그 이상

MIDAS

MIDAS
ARCHI DESIGN

midas ArchiDesign [마이더스 아키디자인]은
도면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건축설계 전용 CAD입니다.

주 | 마이더스아키텍 | 전화문의 031-789-4268 | www.midasarch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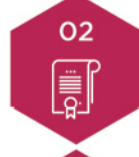
midas ArchiDesign이 제공하는 효용



01

신속대응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법적 기준 및 설계 요구조건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변경된 설계정보는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02

품질확보 도면의 품질과 완성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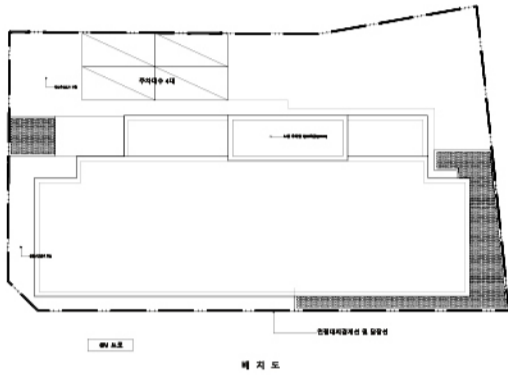
- 템플릿을 활용하여 회사 내 도면의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03

업무효율 기존 도면 작업 대비 3배 이상의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 기본도만 작성하면 파생도면은 내부참조와 템플릿을 통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 축적을 인식하여 도면의 모든 요소를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원일 건축사 / 이엘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26번길 15-1, 수하빌딩 2층
Tel. 062-224-211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66-30번지 / 대지면적 : 649㎡ / 건축면적 : 330.22㎡ / 연면적 : 872.53㎡ / 건폐율 : 50.88%
용적률 : 134.43% / 규모 : 지상 3층 / 용도 : 노유자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주요 마감 : 치장벽돌, 드라이버트

© KMI 한국의학 연구소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8번길 5-6, 영효빌딩 8~9층(Tel. 062-602-2100)

광주건축사회,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업무 개시 안내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자격 갱신등록자 대비, 갱신 가능 회원 35% 밖에

광주건축사회는 건축사법 개정(2012년 5월 31일)에 따른 건축사 자격 등록 의무화로 자격 갱신등록 기간이 2018년부터 시작함에 따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 확인 작업에 들었다.

갱신등록조건이 건축사 실무교육(5년간 총 40시간)을 이수 완료하고, 갱신등록 거부 사유(건축사 자격취소, 자격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건축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8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

▶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2018년 갱신 대상) : 2017년 8월 31일 기준

구분	대상인원	갱신여부		교육별 부족인원		
		갱신가능	갱신불가	윤리	전문	자기계발
정회원	307명	110명	197명	133명	165명	83명

개인별 갱신 여부는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http://www.kirakarb.or.kr>)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운 회원은 광주건축사회 사무국으로 전화(062-521-0025)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교육별 부족 시간과 갱신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된다.

광주건축사회, 도시재생뉴딜정책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오는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N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광주건축사회는 일반 시민과 건축 및 도시재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광주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안전한 도시건축물 재생을 위한 전문가 및 행정가의 역할'이란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건축사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가 후원하며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N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강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내용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와 건축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의 발표와 '일본 도시 건축물 지진 피해 및 지진 위험에 대비한 재생 사례'라는 주제로 동

경대학 지진연구소 재해과학계 연구부문 구스노키 교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과 관련해 도시재생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광주의 여건과 지역 특색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토론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가 및 행정가의 역할을 고민하여 바람직한 광주의 도시재생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 내진 강화와 이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가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사무국(062-521-0025~6)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광주건축사신탁, 조합원 대상 체크카드 발급

건축사 조합원 편의 위해...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광주건축사신탁(이사장 정명철)은 건축사 조합원들의 원활한 금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91483번을 참고하고, 문의는 건축사신탁으로 전화(062-527-8890)하면 된다.



신탁개시백그린체크카드 신탁쇼핑크그린체크카드



신탁더마일리지카드 신탁법인체크카드

광주 회원동정

- **폐업**
- 이인규 건축사 / 명성 건축사사무소
- **전출**
- 김광천 건축사 / 라김 건축사사무소(제주도 전출)
- **변경(상호, 소재지)**
- 조기호 건축사 / 숨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독립로 372, 3층
- **변경(소재지)**
- 정정상 건축사 / 정상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서암대로 131번길 20, 1층
- **부고**
- 홍만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엔터 / 부친상 - 09월 22일(금)
- 심호선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선 / 장모상 - 10월 09일(월)

목포우리병원

이승현 건축사 / (유) 예가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미항로 97 Tel. 061-287-0708



대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68-4번지 / 대지면적 : 1,169㎡ / 건축면적 : 836㎡ / 연면적 : 3,324㎡ / 규모 : 지상 6층
용도 : 의료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알루미늄 복합패널



전남건축사회, 제2회 전국 순회 건축·도시 정책 포럼 주관

지난 9월 21일 동신대학교 동강홀에서... 건축도시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제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박용목)는 전라남도와 공동 주관으로 '고령화 사회,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주제로 한 2017 제2회 전국 순회 건축·도시 정책 포럼을 지난 9월 21일 동신대학교 동강홀에서 개최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전남건축사회 박용목 회장을 비롯한 동신대학교

김필식 총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 전라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 전라남도 김기태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은석 부연구위원이 '건축물 중심의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전라남도 현황 및 여건 분석', '건축물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추진현황', '국내외 녹색건축물 사례', '전라남도 녹색건축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동신대학교 손승광 교수는 '고령사회의 저에너지 건축을 통한 복지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고령사회에서의 에너지 복지',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전략', '에너지 지원 대상과 기술 등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강원대학교 박경립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고령화 시대,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도년 위원,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박신영 위원, 전북대학교 박선희 교수, 동신대학교 손승광 교수, 호남대학교 김흥식 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김승진 전문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은석 부연구위원 등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 순회 포럼은 국가 건축정책 방향의 실효성 정립과 건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됐다. 다음 포럼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축'을 주제로 11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목포대 건축학과, 2017 건축전 개최

지난 9월 13일 학내 플라자 60 전시실에서... 창원대 교류전까지



목포대학교 건축학과(학과장 오양기 교수)는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학내 플라자 60 전시실에서 취업 설명회 및 건축전을 개최했다.

목포대학교 건축전은 5학년의 각 스튜디오 졸업 작품과 함께 4학년의 '오피스 및 마을 설계', 3학년의 '집합 주택', 2학년의 '유치원', 1학년의 'trash recon' 프로젝트가 전시되었다. 또한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와 남도 교류전의 일환으로 창원대 학생들의 작품 5점도 함께 전시됐다.

개막식 당일에는 학년별 작품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MAP한터인 유훈 이사를 포함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여수 우두리 호텔
 최병구 건축사 / (주) 디토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월정5길 81, 401-402호
 Tel. 070-4323-7270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8-4 외 4필지 / 대지면적: 3,501.50㎡ / 건축면적: 2,444.60㎡ / 연면적: 27,969.21㎡
 건폐율: 69.82% / 용적률: 559.78% / 규모: 지하 1층, 지상 23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아노다이징, 현무암판재

해 휴먼플랜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디자인건축 오금렬 건축사의 취업 설명회도 진행됐다.

임준영 목포대학교 학생기자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열기 고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생협약 및 30여 기관단체와 뉴딜사업 참여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 순천시는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남제·저전·장천)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순천시, 희망 건물주 대표, 주민협의체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위해 순천시는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간 상생협약 희망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을 공개모집하고, 2단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함께 집중 홍보활동을 통해 총 40명의 건물주의 신청을 이끌어 냈다.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롯해 3개동 희망 건물주 대표, 2단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주는 임대료 상승 억제와 상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기간을 5년간 보장하고, 주민협의체는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또, 순천시는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지원 및 협조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도 완료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3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상인회, 청년단체, 교육 기관, 언론사, 예술단체, 상권 기관 등 총 30여 개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참여 열기를 확산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9월 1일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3개 팀, 11개 부서)을 운영하고, 연관 부서 협업 회의를 통해 순천시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10월 중 국토부 및 전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말까지 80% 완료키로

2018년 3월까지 100% 달성 위해 담당 공무원제 활성화 등 총력

전라남도가 가축 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실행하면서 축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연말까지 80%, 2018년 3월 24일까지 100%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다.

10월 초 전라남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조사 기준 적법화 가능 농가는 3천 531농가다. 단계별로는 1단계 대상 농가 1천 464호(41%), 2단계 272호(8%), 3단계 1천 795호(51%)다. 적법화 불가능 농가는 375호로, 개발제한구역 106호, 수변구역 50호, 가축사육 제한구역 48호, 접도구역 29호, 기타 142호 등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농장별 담당 공무원 지정 및 매주 수요일 상담의 날 운영, 축산단체 요구 사항 16개 항목 반영, 추진 상황 점검 회의, 부진 시군 현장 방문 점검,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게시, 제도 개선 건의 등 적법화 목표 달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9월 중순 현재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1천 464호 가운데 완료 농가는 449호(30.6%), 진행 중인 농가는 307호(21.0%)로, 추진율이 51.6%다.

3단계까지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3천 531호 가운데 완료 농가는 749호(21.2%), 진행 중인 농가는 748호(21.2%)로, 추진율은 42.4%다.

전라남도는 1단계 대상 농가의 적법화 추진율을 연말까지 80%, 2018년 3월 24일까지 100% 달성을 위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중심이 되는 농가별 담당 공무원제를 활성화하고 매주 수요일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 3월 말까지 민관합동 점검 계획을 세워 매월 부진 시군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농협 축산단체 축산환경 관리원과 함께 부진 시군 위주로 현장을 점검해 현장 문제는 현장에서 적기에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홍보 전단 추가 제작 배포, 지금까지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종합 지침서 발간 배포, 독려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전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주연창 의원, 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 주연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여수 4)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 총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히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에 대한 조문 신설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그린리모델링은 낡은 건축물을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친환경 에너지 설비 등을 보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축물로 개량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낡은 집을 고쳐 쓰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연창 의원은 "2014년 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의무가 생겼으나,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부족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현재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전남도에서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 회원동정

• 변경(상호 및 소재지)

- 김교일 건축사 / (유) 진명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하당로 56-1

• 변경(소재지)

- 박미라 건축사 / GA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오리정2길 39, 101호

청암산화장실

유영록 건축사 / 디오 건축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로 491, 세림빌딩 2층 Tel. 063-453-3700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465번지 / 대지면적 : 1,810.00㎡ / 건축면적 : 83.96㎡ / 연면적 : 78.42㎡ / 건폐율 : 4.64%
용적률 : 4.33%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 삼도봉 등반대회 개최

지난 9월 29일 민주지산 삼도봉에서... 3개도 회원 및 가족 100여 명 참석



전북·경북·충북 건축사회는 건축사회 간의 친목 도모와 우의 증진을 위해 지난 9월 29일 민주지산 삼도봉에서 '제17회 경북·충북·전북 건축사회 삼도봉 등반대회'를 경북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전북건축사회(회장 전병갑) 회원 30명 외 충북, 경북 건축사회 회원 및 가족 및 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삼도봉 정상에서 건축사 업계 발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갖고,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으며 3개도 회원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부문 대상에 전북과학교육원 선정

전주 길 건축 이길환 건축사 설계, 지역 건축사로 첫 대상 수상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준공건축부문 대상으로 전북과학교육원이 선정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에 제정돼 26회째를 맞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특히 한국건축문화대상은 2년 이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하여 1차 서류심사 후 2차 현지 확인을 거쳐 심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서울,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주로 선정되었으나 지역 건축물이 수상되기는 이례적으로 더욱더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전북과학교육원은 종래 전주시 인후동에서 익산시 부송동으로 이전해 지난 5월 개원했으며 총 442억 원을 투입, 부지 32,752㎡, 연건평 14,547㎡(지상 4층, 지하 1층)의 교육 연수관 및 전시체험관을 갖췄다.

전북과학교육원을 설계한 (주)길 건축사사무소(대표 이길환)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날개를 펴자는 '은빛 나래'의 의미를 담았다.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을 은하계와 우주를 향한 우주선으로 형상화해 은빛 날개로 건물의 외형을 표현한 것이다.

교육 연수관은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의 4개 첨단 실험실과 3개의 발명실, 수학체험센터, 영재교육센터, 도서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시체험관은 유아과 학관, 전통과학관, 로봇관, 에너지관, 4D 체험관, 천문우주관 등 10개의 체험관에 95종의 전시체험물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자는 대통령상 수상과 전라북도교육청 및 시공자(구일종합건설(주) 대표 김찬식)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동일한 장소에 전시될 예정이다.

건축! 전북을 짓다
수동출판 건축

2017년
10.28(토) ~ 11.02(목)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2017 Jeollabukdo Architecture Festival

주최: 전북도청, 전북건축문화재단
주관: 전북건축문화재단, 전북건축문화협회, 전북건축문화학회, 전북건축문화연구소, 전북건축문화연구원, 전북건축문화학회, 전북건축문화연구소, 전북건축문화연구원, 전북건축문화학회, 전북건축문화연구소, 전북건축문화연구원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주요행사 추진일정

행사명	장소	날짜, 시간별			행사명	장소	날짜, 시간별					
		10.28 (토)	11.01 (수)	11.02 (목)			10.28 (토)	10.29 (일)	10.30 (월)	10.31 (화)	11.01 (수)	11.02 (목)
1. 개막식	전라북도청 로비	11:00 ~12:00			7. 건축백일장 대회	전라북도청 로비, 공연장	10:00 ~15:00					
2. 설계사례 발표	도청 중회의실		10:00 ~11:00		8. 건축올림피아드	도청 대회의실(4층)	13:00 ~18:00					
3. 학술발표	도청 중회의실		11:00 ~12:30		9. 3D 프린팅 체험	전라북도청 로비, 공연장	10:00 ~15:00					
4. 건축문화상 시상식	도청 대강당			14:30 ~15:30	10. 건축·진로 상담	도청 1층 로비		10:00~17:00				
5. 어린이 집 그리기대회	전라북도청 로비, 공연장	10:00 ~15:00			11. 전시	도청 기획전시실, 로비 등		10:00~17:00				
6. 건축모형 만들기(과자)	전라북도청 로비, 공연장	10:00 ~15:00			12. SNS 서포터즈 기지단 활동	2017년 7월~11월 수시 홍보 활동 전개						



255-16번지 신축공사

이준호 건축사 / 준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9길 48
Tel. 063-228-0481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55-16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193.0㎡ / 건축면적 : 115.66㎡ / 연면적 : 398.53㎡
건폐율 : 59.93% / 용적률 : 206.5% / 규모 : 지상 4층 /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22%만 내진 설계, 대상 동수 10개 중 2개꼴로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 낮은 지역은 부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 동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 동에 불과하고 내진율은 20.40%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대구(15.40%) 순이었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민간건축물의 34%가 내진 설계로 건립됐다.

전북의 경우 내진 대상 동수는 8만 8,383동이며 내진 설계가 이뤄진 것은 1만 5,591동으로 22.40%의 내진율을 보였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1988년 이후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500㎡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 성능 확보 대상이 144만 동에서 264만 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군산시, 2017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 추진

오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제출



▲ 2015년 금상 수상작 군산한일교회

전라북도 군산시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 및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한 관내의 우수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다양한 건축양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2017년 군산시 건축문화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여 올해로 4회를 맞은 '군산시 건축문화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사용 승인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시에서는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금상과 은상, 동상 각 1점씩 총 3점을 선정하여 상패와 시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건축물에는 수상내용을 새긴 동판을 건물 전면에 부착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중 당선작을 시청사 2층 시민갤러리에 전시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나 건축경관과(063-454-4312)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 회원동정

• 퇴회

- 이득영 건축사 / (주) 목양 종합건축사사무소
- 허춘식 건축사 / 무주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강정용 건축사 / 삼호설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1길 18-10, 2층
- 오요안 건축사 / 삼호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1길 18-10, 2층
- 노관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상상 / 전북 군산시 검다메안길 25
- 이영준 건축사 / 아리울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향교길 186

• 부고

- 정태조 건축사 / 헤세드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9월 25일(월)
- 김관우 건축사 / 토마스 건축사사무소 / 배우자상 - 09월 26일(화)
- 정철봉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원건축 / 빙모상 - 09월 27일(수)
- 김종태 건축사 / H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10월 01일(일)
- 소정훈 건축사 / 훈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10월 03일(화)

세무법인 서정, 광주건축사회 세무자문위원 정호령 세무사

“국세청 22년 경력으로 어려운 세금문제 도와 드립니다.”

▶ 취급업무 ◀

세무상담 / 신고대리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조세불복 / 세무조사조력

본점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31 (일곡동, 광산빌딩 5층)
지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뱃꽃3길 12 (Tel. 063-277-0544)
Tel. 062-575-3105-7 / Fax. 062-575-3109 / E-mail : ho-rjung@hanmail.net

순천시 조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본 사업은 기존 청사 건물 및 부지가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이전 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동천수변공원 저류형 공원 조성 계획 내 현 조곡동 주민자치센터 부지가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설계공모를 실시함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자경1길 13
- 연 면 적 : 2,460㎡(±10% 이내 조정 가능)
- 대지면적 : 1,890㎡
- 용 도 : 공공업무시설(주민자치센터)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공 사 비 : 6,480백만 원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우수작 : (주)에스지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가 작 :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당선작

이순미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우수작

최기성 건축사 (주)에스지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가 작

박병열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제14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Gwangju Festival of Architecture & Urban Culture) 개최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려, 개막식 25일 오후 4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제는 광주지역 3개 건축 관련 단체(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가 지난 7월부터 각각 진행한 건축도시문화제사업 결과물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관단체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석중 회장은 초청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광주의 건축문화 융성을 위해 지역의 건축인과 시민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 ‘제14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25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개막식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작년보다 더욱 풍성하게 구성된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본다.

※ 제14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안내

10월 25일 (수)	건축인의 밤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서구 치평동)
10월 25일 (수) ~ 10월 28일 (토)	개막식	25일 (수) 오후 4시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기획전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원전 양림동 건축 100년 학생 우수 건축 작품전 아름다운 문화도시 경관상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건축공학작품경진대회
	시민학생 참여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체험교실 건축민원상담 건축·도시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 전시

▶ 양림동 건축 100년

‘빛고을’ 광주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곳이 양림동이다. 양림동은 광주 근대화의 산실이다. 지금도 기독교와 유교, 전통과 근·현대가 공존하고 있다. 100년 전 선교사들은 여기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개설했는데... 양림동 건축 10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행사가 열린다.



▶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원전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7월부터 광주건축사회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 또는 계획작품을 모집공고했는데 약 15점의 뛰어난 작품이 출품됐으며 A1 사이즈 패널로 전시될 예정이다.



▶ 건축·도시사진 공모전 입상작품 전시

시민 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건축 사진 공모전은 올해 처음 광주지역 관내로 대상지를 제한하여 공모되었으며 10월 중순 입상작품이 발표될 예정이다. 총 50여 점의 공모 작품이 출품되었고, 대상작 1점과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 입선작 27점이 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된다.

▶ ‘개막식’ 10월 25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제14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식이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석중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오픈테이프 커팅식과 참석 내외빈 대상 전시물 인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 ‘건축인의 밤’ 10월 25일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4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기념행사로 진행되는 2017년 건축인의 밤은 광주 건축 관계자를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건축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자랑스러운 건축인 선정과, 전국도시재생공모전, 광주건축상,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제21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 작품 발표는 10월 19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0월 25일 열리는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역대 광주건축상 수상작 조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계획됐다.



▶ 건축·도시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 전시

사진 공모전과 함께 진행된 그림 그리기 사생대회가 지난 9월 23일 광주광역시청 1층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되었고,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등 100여 명이 참가하여 작품이 출품됐다. 지난 9월 말 발표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최고상 4인에 수원초등학교 6학년 선한이 학생과 계수초등학교 6학년 임은서 학생, 새별초등학교 1학년 이은성 학생, 운천초등학교 1학년 임유담 학생이, 유치부 최고상 1인에 SLP유치원 신지안 어린이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고상은 오는 건축인의 밤에서 시상되며, 이외 입상자는 10월 28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홀에서 시상된다.



▶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 전시 /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 건축공학작품 경진대회

도시재생 아이디어 전국 공모전이 지난 7월부터 진행되었고. 오는 10월 중 대상 작품이 발표되며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식이 거행된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우수 작품 패널 및 모형도 전시된다. 더불어 지난 7월에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건축공학작품 경진대회의 결과물 전시회도 계획되어 있다.

▶ 건축민원 상담 / 건축체험교실

문화제 행사 기간 중 건축민원 상담실이 개설되어 건축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중심도시 광주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한다. 상담 내용은 건축법규, 계획, 시공 및 민원에 대한 제반사항이다. 또한 건축 그림 그리기, 건축 퍼즐 만들기 등 참여 어린이들을 위해 건축체험교실이 운영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3인 등록

오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본 등록기간 거쳐 내년 1월 23일과 24일 선거 실시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음 3인의 건축사가 등록했으며, 오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본 등록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3일과 24일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선거 예비후보자 공고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선거에 다음의 정회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 확정되었기에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다
음
(등록신청순)

성명	사진	사무소명	소속건축사회
강석후 姜錫厚		수림 건축사사무소	서울
석정운 石正勳		(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서울
임송용 林松龍		(주)정일 건축사사무소	경북

2017. 9. 25.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당선된 작품의 건축주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되고, 시설물에는 기념동패가 부착된다.

신정철 나무심는 건축인 대표는 “이번 공모는 지난해에 비해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경쟁이 치열하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경관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품격 있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건축·도시설계전공 학생들, 국제 디자인 워크숍 참여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건축도시설계 디자인 워크숍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도시설계전공 학부생과 대학원생 7명은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에서 열린 국제건축도시설계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하여 세계적인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거대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적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번 델프트공대 여름학교는 국제어바니즘포럼(IFoU)과 델프트공대 건축학부, 암스테르담 광역도시연구소(AMS) 및 델프트교통기반시설공사(DIMI)가 공동 주관한 국제적인 학생교류 사업으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는 국제어바니즘포럼(IFoU)의 정식 회원으로 초청되어 참가했다.

IFoU는 2006년 도시·건축 설계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및 연구소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로서, 주요 활동으로 국제 컨퍼런스, 학생교류, 교수 교류, 합동 워크숍, 합동 교육, 공동 연구, 출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IFoU 회원기관으로는 델프트공대, 바르셀로나공대, 국립싱가포르대, 북경대, 칭화대, 동경대, 국립타이완대 등 유럽과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는 2008년부터 IFoU 행사에 참가하였고 2010년 정식 회원 기관으로 가입했다.

또한 매년 IFoU가 주관하는 워크숍 및 컨퍼런스에 학생과 교수가 참가하여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최신 학술이론과 설계 방향을 공동으로 연구, 교육하고 있다.

이번 2017 델프트공대 여름학교에서는 “Making the Metropolis(메트로폴리스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Connected City(도시의 연결성)’, ‘Vital City(도시의 활력성)’, ‘Circulating City(도시자원의 순환성)’이라는 3가지 관점으로 지속 가능한 대도시 건설에 대한 정책 및 설계 대안을 도출했다.

암스테르담 시의 낙후된 항구지역인 “Hafen Stad”를 대상으로 하여 암스테르담 시 관계자, 관련 연구소 연구원들의 강의와 현장답사가 진행되었고 중간발표를 통한 피드백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은 대안적 정책과 설계안을 제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도시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미래 적용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국제워크숍에 튜터로 참여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 이론 및 방법의 혁명으로 대도시 개발에 진보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한 명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가 대도시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메트로폴리탄 해결방안은 연구소, 기업 및 정부 간의 협력뿐 아니라 도시 및 시민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다양한 전공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모여서 협업을 통해 가능성을 탐구한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건축학부 4학년 임희지 학생은 “도시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전공분야 학생 간의 의견 교류를 통해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으며, 도시를 다루는 방법론적인 측면과 과정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히고, “같은 맥락으로 이번 가을 학기에 진행되는 학교 설계 프로젝트의 주제 또한 도시에 관한 것이라 이번 국제 디자인 워크숍의 참여가 여러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배워온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시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는 앞으로도 IFoU 활동과 함께 수준 높은 국제 교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축·도시설계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제공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나무심는 건축인, 2017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공공, 민간, 주거부문에 총 30개 작품 응모, 3개 선정



▲ 공공건축물 부문 - 농성동 서구청 청사

나무심는 건축인(대표 신정철)은 ‘2017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에 서구청 청사, 어비스기념관, 수완 중흥S클래스 등 3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공모에 공공, 민간시설, 주거부문에 총 30건이 출품되는 등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였다. 이 가운데 공공성, 기능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각 분야별 한 작품씩 3개 작품을 선정했다.

공공건축물 부문의 서구청사는 시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청사 전면의 조경공간이, 민간건축물 부문의 어비스기념관은 공공성과 시민들의 접근성 등이, 주거부문의 수완 중흥S클래스는 독특한 조경공간과 예술작품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선정된 작품은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일환으로 시청 1층 시민



▲ 민간건축물 부문 - 양림동 어비스기념관



▲ 주거 부문 - 흑석동 수완 중흥S클래스

사랑에서 _ 서른다섯 번째

건축사 업무대가에 대한 울분

개인적인 무능력 때문일까? 갈수록 건축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버거워지는 느낌이 든다. 천직이라 생각했었고, 보람과 성취감도 맛볼 수 있었으며,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기에 건축사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제아무리 힘든 과정도, 그 어떠한 역경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련한 과거의 추억처럼 멀어져 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건축사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타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 역시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건축설계 분야의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점이 가장 불길하다. 즉 말하자면, 건축사를 꿈꾸는 인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과 5차 산업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는 미래를 예단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렇다면 왜 젊은 인재들은 건축설계를 외면하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할 현시대 건축사들의 모습에서 비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힘든 실무수련과정을 거쳐 건축사가 된다는 것, 치열하다 못해 비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고, 대가는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량에 파묻혀 살아야 하며,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기엔 커녕 갑질과 박대 그리고 경제적인 속박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건축문화 창달을 운운하거나 건축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강조하는 것 또한 허구에 가깝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처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건축설계업계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의 몰락은 그에 그치지 않고, 건축문화와 도시환경의 침체,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과 문화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는 건축사들의 사명의식에 기대거나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뒷짐만 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현실적인 건축사 업무대가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찰 제도다.

복잡한 조건과 자격 제한으로 규모가 큰 설계용역 입찰에는 참가조차 못하다가, 얼마 전 입찰을 통해 자그마한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 용역비가 턱없이 적었다. 그래서 발주기관과 조달청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회신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특히,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과 '용역비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으면 애초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답변은 건축사에 대한 비아냥처럼 들려 잠을 설칠 정도로 씁쓸했다.

건축사가 즐겁고 행복하지 아니 한데 어찌 좋은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사회는 언제까지 건축사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을 것인가! 갖은 자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설계용역비를 저울질할 때 구역질이 나고, 관행이나 감사 그리고 예산절감을 핑계 삼아서 갑질을 할 때 분노가 치미는 것은, 나만이 겪는 감정일까?

자문위원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법/령/정보

□ [법령][의원발의][20092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0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으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는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는 한편,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착공 신고 시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11항 개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정명환
- 부편집인: 강동영, 박종호, 양우현
- 자문위원: 서재형
- 전담기자: 객승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현,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아카임: 300,000원
- (주)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세무법인 서정: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 원고마감 : 매달 25일
-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E-Mail : gj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책 소개 _ 김다혜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창가의 토토

구로나야기 테츠코 / 김난주 옮김 / 프로메테우스 / 2000. 06. 01.



교장선생님은 토토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넌 사실은 정말 착한 아이란다” 그때마다 토토는 활짝 웃으면서 신이 나 대답했다. “그럼요, 난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 출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창가의 토토’는 현재 아사히 TV에서 40년간 <테츠코의 방>을 진행하고 있는 저자 구로나야기 테츠코 본인의 유년시절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책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주인공 토토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다. 수업 도중 친동아를 부르거나, 책상 뚜껑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운동 문제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토토는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의 학교를 떠나 열차로 만든 ‘도모에 학원’으로 전학을 가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른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썽꾸러기 아이지만 새로운 학교 ‘도모에 학원’의 선생님들은 토토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화하며 토토를 받아들인다. 볼 일을 보다 지갑을 정화통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분노를 퍼내는 토토를 기다려주고, 네 시간이 넘도록 토토가 하는 이야기를 지루한 기색 없이 흥미롭게 들어준다.

이처럼 일반 학교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진 도모에 학원은 그 외에도 산과 들과 바다로 이루어진 도시락, 종이가 아닌 전교생이 강당에 그리는 열려있는 악보, 주의사항 대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등 교장선생님의 참신한 교육법으로 토토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실에서 조용히 하고, 몸이 불편한 친구와 스스럼없이 친해지도록 이끌었다. 세상에 영원히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던 토토를 그녀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모에 학원에서 이뤄진 불가능할 것 같은 교육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키고 사고를 깨워준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버린다. 하지만 자라나는 토토 같은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유와 탐색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세상사는 느낌 _ 유영록 독자 / 전라북도 군산시

일하는 삶 (2017년 9월 작성)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 이슬을 맞으며 7시까지 출근하여 하루의 일상의 시작이 요란하다. 모든 건설현장이 그러듯이 현장소장으로의 하루는 걱정 반, 불안 반... 주변의 보이는 다양한 여건들이 늘 하는 일이지만 정말 바쁘게 돌아간다.

가을이라 일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어느덧 이 일을 해온 지도 20여 년이 되어가는 것 같다. 검게 그을린 얼굴을 보는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며 무슨 상상을 할까, 많은 공휴일을 함께 하지 못해 가족에겐 항상 미안함도 있지만, 현장에도 지켜주어야 할 분들이 더 많으니 마음 한편에 살아온 삶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작업반장님부터 목수, 철근공 등 각 공정마다 오랜 인연으로 함께 해오며 서로의 늙어가는 노고의 짐들이 얼굴 모습에 흔적 되어 참 오랜 시간 감사하다는 몽클함이 든다.

머지않아 2017년 추석을 맞이한다. 이번 한가위는 무척 긴 휴식의 시간이 될 거 같다. 일하시는 분들도 오랜만의 달콤한 쉼을 맞이하여 모두들 좋아 보인다. 추석을 보내고 만날 땐 그동안 묻은 흔적들이 조금은 지워질까, 옛날 공사현장과 달리 요즘은 새참 때 술도 없다. 지난밤에 술이 많이 되어 아침 출근길에 술 냄새가 나면 현장 출입도 불가능한 요즘, 많은 변화의 현장여건이 당연한 일이지만 가끔 옛날이 그리기도 하다.

나의 삶이 지쳐갈 때쯤이면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분들과 먼 미래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을는지, 지금 이 순간 일하는 삶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주변 지인들은 나이 들어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 부럽다고들 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으련만...

풍요의 가을 하늘이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향기롭다.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의 일하는 삶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새살

이글거리는 태양 앞에
온갖 가리개를 벗어 던진 채
탐욕으로 가득 찬
알몸으로
살을 태운다

말없이 돌아나는 새살같이
하얗고 뽀얀 하게

그렇게 살아갈 날을
헤아리며
눈만 껌벅이고 있습니다.

수포가 생기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지나면
그동안 지은 죄
사하여 추기라도 하듯
허물이 벗어지고
새살이 돋는다

내손 안의 스마트감리앱

국내최초 국내유일 공사감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키엠

201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반영!!

PDF매뉴얼 다운로드
www.archim.kr

facebook 아키엠

youtube 아키엠